

2024
Daegu Opera House
Season Opera



U. Giordano
Andrea Chénier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시즌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2024
Daegu Opera House
Season Opera



U. Giordano
Andrea Chénier

2024 대구오페라하우스 시즌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Contents

Summary 개요	04
Greetings 인사말	05
Composer 작곡가 소개	06
Synopsis 줄거리	08
Exposition of Andrea Chénic 작품소개	10
Director's Note 연출노트	14
Scenic Design 무대디자인	16
Custume Design 의상디자인	18
Creative Team 주요제작진	20
Cast 출연진 / 출연단체	24
Production Staff 프로덕션 스태프	34

Andrea Chénier

안드레아 세니에

2024. 5. 17 - 18/24 - 25

대구오페라하우스

개요

작곡 움베르토 조르다노 Umberto Giordano 1867-1948

대본 루이지 일리카 Luigi Illica

배경 프랑스 혁명 시절, 파리와 그 근교

초연 1896. 3. 28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형식 4막

언어 이탈리아어(한글/영어자막 제공)

제작진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마르첼로 모타델리 Marcello Mottadelli

연출 김지영

출연진

안드레아 세니에 Ten. 윤병길, 박성규

만달레나 Sop. 임세경, 릴라 리

카를로 제라르 Bar. 최진학, 오승용

베르시 M.Sop. 김선정, 손정아

마데롱 M.Sop. 손진희, 김향은

쿠와니 백작부인 M.Sop. 김하늘

루쎬 Bass 이재훈, 문석훈

마튀에 Bar. 서정현, 전종욱

밀정 Ten. 오영민, 이충만

플레빌/재판관 Bass 이기현

푸키에 Bar. 정재학

수도원장 Ten. 이동규

집사/간수 Bass 전재민

디오오케스트라

대구오페라콰이어

카이로스댄스컴퍼니

극단 늘해랑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정갑균
Chung Kabgun

Greetings

인사말

어느덧 봄의 기운이 완연한 희망의 계절 5월에 2024년 대구오페라하우스 시즌 오페라 세 번째 작품 <안드레아세니에>에 오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파우스트>에 이어 대구오페라하우스가 자체 제작한 세 번째 전막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는 유럽의 대격변기, 프랑스 혁명 시대의 사랑과 죽음을 그린 오페라입니다. 또한 작곡가 움베르토 조르다노(Umberto Giordano 1867-1948)가 남긴 오페라 중 가장 흥행에 성공한 대표적인 베리즘(Verismo, 사실주의) 작품입니다. 1896년 초연 이후 약 130여년 동안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든 이 오페라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선율과 화려한 아리아, 웅장하며 힘 있는 무대장치들이 대구오페라하우스 관객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2010년에 전막 오페라로 올린 이후 1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작품이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20년 역사의 국내 유일 오페라 전문 제작극장의 노하우와 자부심을 가지고 국내외 최고의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그 영광의 순간을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안드레아 세니에>에 이어 8월에는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하기에 적합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년이 된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앞으로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를 향한 관객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5.

Umberto Giordano

1867-1948



움베르토 조르다노

움베르토 조르다노(Umberto Giordano 1867~1948)는 1867년 이탈리아 남부 포자에서 태어났다. 그는 처음으로 음악기초를 그의 친구가족으로부터 배웠으며 포자에서 그리씨, 시노렐리와 함께 음악공부를 했다. 그는 나폴리 마이엘라의 산 피에트로 국립음대를 지원하였으나 실패하고, 세라오 교수의 개인수업을 받는 학생이 되었다.

1882년 그는 다시 국립음대에 도전하여 입학하게 된다. 대위법과 작곡은 세라오 교수, 오르간은 마르코 엔리코 보시 교수, 피아노는 마르투치 교수, 바이올린은 페르니 교수에게서 배웠다. 그 당시 나폴리 국립음대에서 학업을 쌓는다는 것은 음악의 기초를 확실히 공부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조르다노는 당시 국립음대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다. 당시 그의 대표적 작품은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모음곡과 로망스 'Idillio'이다. 특히 이 작품들은 청중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자아냈으며, 로망스 'Idillio'는 '리코르디'에 의해 출판되었다.

1888년 조르다노는 손초노 오페라 콩쿠르에 참가하는데 이 콩쿠르에서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우승하고, 그의 작품 <마리나>는 콩쿠르에 참여한 73편의 작품 중 6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마리나>는 이후에 한 번도 연주되지 않는다. 이 콩쿠르의 심사위원은 필리포 마르케티, 아민토레 갈리다. 마르케티는 오페라 작곡가로 당시 인기를 누렸으며, 갈리는 밀라노 국립음대의 음악사 교수이자 카사손초노(음악 출판사)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21세의 조르다노와 출판업자와의 만남을 추천하였다. 조르다노는 손초노에서 로마로 가서 그의 작품 <마리나> 전곡을 연주했다.

그 결과 작곡자 마스카니, 레온카발로, 스피로 사마로, 가에타노 코로나로와 함께 월급을 받으며 1년 내에 새로운 오페라 작품을 쓰기로 하였다. 그들의 목표는 리코르디와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오페라 레퍼토리를 창조하는 것과 1800년대 오페라와 바그너 오페라 연주 저작권을 갖는 것이었다.

밀라노로 이주한 조르다노는 베리즈모 오페라의 대표주자인 마스카니와 많은 음악적 교류를 하였고 1896년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세니에의 삶에서 모티브를 얻어 대표작 <안드레아 세니에>를 발표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2년 뒤인 1898년 조르다노는 빅토리아 사르투의 희곡을 바탕으로 당시 떠오르는 신예였던 테너 엔리코 카루소를 기용해 <페도라>를 발표하고 성공을 이어갔다.

Synopsis

줄거리

1 막

쿠와니 백작의 온실. 파티준비를 하던 하인 제라르는 신분 차이에 격분을 하다가 백작의 딸 만달레나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는다. 가족의 특별 손님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한 소설가 프레빌은 시인 안드레아 세니에를 소개하는데 그는 쿠와니 백작의 딸 만달레나를 보고 첫눈에 사랑을 느낀다. 파티를 즐기던 중 백작부인이 시를 부탁하자 세니에는 거절한다. 그러자 만달레나가 그의 입에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게 내기를 하자고 한다. 세니에는 성직자와 귀족을 비난하고 사랑의 존귀함을 격렬히 노래하는 즉흥시를 들려준다. 그 모습에 그녀는 감동하여 사과한다.

그때 상류층에 적대감을 품은 하인 제라르가 길에서 부랑자 여러 명을 파티장으로 데려와 파티를 망치게 하고 백작부인 앞에 하인 제복을 벗어던지고는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집을 떠난다. 하지만 귀족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춤을 춘다.

2 막

루쉐가 세니에에게 통행권을 건내며 파리를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그는 ‘희망’이란 이름으로 보낸 편지의 여인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만나기 전까지는 파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때 베르시가 다가와 한 여성이 당신을 곧 만나러 올 것이라고 이야기해준다. 그날 밤, 세니에 앞에 만달레나가 나타나 편지의 주인공이 자신임을 밝히고 모든 것을 잃어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자 그는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맹세한다. 한편 밀정은 혁명가의 지도자급 인물이 된 제라르에게 이상황을 보고한다. 급히 달려온 제라르는 세니에와 결투를 하고 결국 제라르는 세니에의 칼에 찔린다.

3 막

혁명재판소의 넓은 방. 제라르는 혁명 정권이 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모금을 위한 연설을 한다. 이때 전쟁에서 아들과 손자를 잃은 마데롱이 나타나 막내 손자를 소년병으로 이 나라에 바치겠다고 하고,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다. 제라르는 세니에의 기소장을 앞에 놓고 혁명의 정의와 자신의 애육을 혼동하고 있는 심적 갈등을 느끼지만 결국은 기소장에 서명하여 넘겨준다. 그때 만달레나가 나타나 세니에의 구명을 호소한다. 제라르는 그녀에게 사랑을 요구하자 거부하던 그녀가 태도를 바꾸고 혁명이 일어난 뒤 자신의 삶을 노래한다. 그 모습에 감동한 제라르는 세니에를 구해줄 것을 약속한다. 재판이 시작되자 민중들은 잇따라 사형을 선고한다. 세니에는 자신의 정의를 주장하며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결국 사형을 선고 받는다.

4 막

생 라자로 감옥. 세니에는 친구 루쉐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시를 낭송한다. 한편 제라르는 만달레나와 감옥으로 찾아와 면회를 신청하고 간수에게 “내일 아침 처형당할 여성 중 아이 어머니가 있느냐”고 묻고는 그녀 대신 자신이 처형당하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렇게 세니에와 함께 처형 당하게 된 두 사람은 감옥에서 죽음의 아침을 기다리며 ‘우리의 죽음은 사랑의 승리’라는 이중창을 부르며 막은 내려간다.

Act 1

Count Coigny’s Greenhouse. Gérard, a servant who was preparing for the party, is enraged by the difference in social status, but is entranced by the beauty of the count’s daughter, Maddalena. Novelist Preville, who attended the party as a special guest of the family, introduces the poet Andrea Chénier, who falls in love at first sight with Count Coigny’s daughter, Maddalena. While enjoying the party, the Countess asks for a poem, but Chénier refuses. Then she suggests a bet that the word ‘love’ will come out of Maddalena’s mouth. Chénier presents an impromptu poem that criticizes the clergy and nobility and sings passionately about the nobility of love. Touched by that, she apologizes. At that time, Gérard, a servant who is hostile to the upper class, brings several vagabonds from the street to ruin the party. He takes off his servant uniform in front of the countess and leaves the house with his father. However, the nobles dance again as if nothing has happened.

Act 2

The square around a cafe in Paris in June 1794, five years later. Chénier’s friend Roucher, who appears with a pass for him, tells him to get out of Paris. However, when he says that he will not leave Paris until he meets the woman who sent a letter under the name of ‘Hope’ as he thinks that it is fate. At this time, Bersi approaches and tells him that a woman will come to see him soon. That night, Maddalena, appears in front of Chénier and reveals that she is the one who wrote the letter. When she tells him that she has lost everything and has no one to rely on, he swears to protect her until the end. Meanwhile, the spy reports this situation to Gérard, who has become a revolutionary leader. Gérard, who rushes over, engages in a duel with Chénier and is eventually stabbed by Chénier.

Act 3

The large room of the Revolutionary Tribunal. Gérard gives a speech for fundraising, saying that the revolutionary regime is under threat from many countries. At this time, Madelon, who lost his son and grandson in the war, moves people by saying that he will offer his youngest grandson to this country as a child soldier. When faced with Chénier’s indictment, Gérard feels a psychological conflict that confuses the justice of the revolution with his own desires. Eventually, however, he signs the indictment and hands it over. Then Maddalena appears and pleads for Chénier’s life. When Gérard asks for her love, she refuses, but changes her attitude and sings about her life after the revolution. Moved by that, Gérard promises to save Chénier’s life. As the trial begins, the people continue to sentence Chénier to death. Asserting his justice, Chénier sings of love for his country, but he is ultimately put to death.

Act 4

Saint Lazarus Prison. Before his death, Chénier recites a poem he wrote in front of his friend Roucher. Meanwhile, Gérard comes to the prison with Maddalena, and requests to see him. He asks the jailer, “Is any of the women who will be executed tomorrow morning the mother of a child?” and pleads that he be executed instead of her. The two people, who would be executed together with Chénier, wait for the morning of death in prison and sing a duet titled ‘Our Death is the Triumph of Love’ as the curtain goes down.

Andrea Chénier

U. Giordano

유윤종 기자
동아일보 문화부

“앙드레 세니에는 콘스탄티노플(이stanbul)에서 태어났다. 덕분에 그는 고대의 아름다움을 힘들이지 않고 맛볼 수 있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정의에도 매혹된 그는 열광적으로 프랑스 혁명에 가담했지만 선동가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렸다. 세니에는 생전 두 편의 시밖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사후 세 권이나 될 만한 분량이 발견되었다. 세니에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같은 예술가적이고 육감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다. 그러나 자기의 사형 집행인들을 모욕하기 위해 그는 ‘풍자시’에서 근대적인 어조를 찾아냈다.” (량송 불문학사)

움베르토 조르다노는 말수가 적은 사나이였다. 나폴리 음악원을 나온 그는 21세 때인 1888년 악보출판사 겸 오페라 흥행사 손초노가 주최한 단막 오페라 콩쿠르에 첫 오페라 <마리나>를 제출했다. 1등상은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에 돌아갔지만 심사위원들은 조르다노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손초노는 경쟁사인 리코르디가 푸치니에게 했던 것처럼 고정 급어를 제시하며 이 젊은이를 소속 작곡가 명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 뒤의 성적은 신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작품 <말라비타(뭍쓸 인생)>는 성공의 싹을 보였지만 세 번째 작품 <레지나 디아스>가 대실패로 돌아가자 손초노는 그에 대한 신뢰를 잃고 급어 지급을 중단했다. 유망했던 젊은 작곡가는 자신의 다른 특기를 살려 펜싱 클럽을 열어 생계를 잇고자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다. 1894년, 작곡가인 알베르토 프랑케티 ‘남작’이 그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자신이 확보해둔 멋진 소재를 조르다노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프랑케티는 이후 푸치니의 대표작 중 하나가 되는 <토스카>도, 마스카니의 성공작 중 하나인 <이리스>도 먼저 오페라 각색권을 확보한 뒤 선선히 이를 양보한 인물이었다. 귀족인 만큼 절박성이 부족했다고 할까, 도량이 지나치게 넓은 탓이었을 것이다. 그가 확보한 소재는 프랑스 대혁명기의 시인 앙드레 세니에였고 이탈리아어로 <안드레아 세니에>가 될 오페라 대본은 이미 시인 루이지 일리카가 쓰고 있었다.

일리카는 조르다노보다 열 살 위로 오른쪽 귀가 없었다. 한 여성을 둘러싼 결투로 외이(外耳)를 잃은 것이다. 이 사실은 그의 걱정적인 성격을 말해준다. 젊은 시절엔 해군에 복무하며 터키와의 전쟁에 참전했다. 뜨거운 성격의 열혈시인 세니에를 묘사하는 데 그의 대본은 그만이었다. 조르다노는 그에게 두 가지 요구를 전했다. “1. 청중은 무대에서 ‘허가 든 입’을 보기 전에는 끌려들지 않습니다. 2. 오페라가 성공하려면 하품의 여지를 주지 않고 움직여야 합니다.” 동적인 무대가 필요하며 쉽 없이 성악가가 청중을 매혹하도록 대본을 마련하라는 주문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호흡이 필요했다. 조르다노는 바쁜 일리카에 맞춰 밀라노로 거처를 옮겼다. 돈이 궁해 비석과 조각상이 즐비한 장례사의 창고에서 지내야 했다. 일리카는 당시 푸치니의 <라 보엠> 대본도 함께 작업 중이었다. 나중에 알게 될 일이지만 그는 이탈리아 근대 오페라 역사에 거대한 자취를 남긴 인물이 된다. 푸치니의 중기 3대 대표작인 <라 보엠>, <토스카>, <나비부인>을 다른 대본작가 자코사와 함께 마련했고

카탈라니의 <라 율리>, 마스카니의 <이리스> 등도 그의 손에서 나올 터였다. 1896년 1월 작곡이 끝났다. 문제는 손초노였다. 조르다노의 실력에 대해 신중해진 출판사는 이 작품의 흥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여겼다. 손초노가 소유하고 있던 일간지 ‘일 세 콜로’의 음악평론가 갈리가 “이 작품은 연주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위기에 처한 그에게 또 한번의 행운이 찾아왔다. 아니, 그의 절박함이 일어나간 행운이었을 것이다.

당시 손초노의 대표 작곡가인 마스카니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의 성공으로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조르다노는 그를 찾아가 손초노를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피렌체 최초의 전차 개통식에 초대받아 출발하려 했던 마스카니는 조르다노의 열성 때문에 그의 말을 듣느라 참석을 포기했다. 개통식에서 전차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충돌 사고를 일으켰고 승객 여러 명이 사망했다.

조르다노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고 여긴 마스카니는 손초노에 대한 설득에 열성을 보였고 손초노의 또 다른 대표주자인 <팔리아치>의 레온카발로도 설득에 가세했다. 마침내 <안드레아 세니에>는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일리카는 역사책의 사료와 자신의 상상력을 숙련된 솜씨로 혼합했다.

현실 역사 속의 앙드레 세니에는 1762년 이스탄불(옛 동로마제국 수도 콘스탄티노플)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프랑스에서 온 옷감 상인으로 20년을 보낸 뒤 이 도시의 프랑스 영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그리스어를 쓰는 기독교도와 튀르키예어를 쓰는 무슬림들이 섞여 살았으며 세니에는 그리스어를 배웠다. 가족들과 함께 프랑스로 온 세니에는 스트라스부르의 프랑스 연대에 입대했지만 군대가 체질에 맞지 않음을 알고 파리로 와서 문인과 역사가들의 살롱을 다니며 교양을 쌓았다. 능숙한 그리스어는 파리 교양인들 사이에서 그에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했다. 그는 그리스 시들을 번역했고 그 시들을 모방한 시를 쓰기도 했다.

그가 27세 때인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다. 입헌군주제를 지지한 세니에는 ‘혁명은 이미 완수됐고 법적 통치를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관점은 온건했지만 그의 말은 공격적이었다. 거리에서 연설하고 수많은 신문과 팜플렛에 의견을 표출했다. 주로 로베스피에르나 마라 등의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1791년 8월 10일, 루이 16세가 폐위됐다. 군주제는 금기어가 됐다. 세니에는 베르사유의 은신처로 몸을 피했지만 2년 남짓한 은신 끝에 체포됐다. 생라자르 감옥으로 이송된 뒤 그는 배반된 혁명의 이상을 고발하는 시를 썼고 가족들은 간수를 매수해 이 시들을 빼돌렸다. 시 중에는 이 감옥에 갇힌 플뢰리 공작부인 에메 드 코이니의 불행을 그린 ‘젊은 여죄수(Jeune Captive)’가 있었다. 이 시는 대본작가 일리카가 세니에와 코이니 가문 여성의 로맨스를 창작하는 계기가 된다. 오페라에서 세니에의 연인 마탈레나의 소재가 된 실제 인물 에메 드 코이니는 실은 기혼녀였다. 그는 간수에게 뇌물을 주고 탈출했으며 나중에는 나폴레옹의 황후 조세핀의 친구가 되었다.

앙드레 세니에는 1794년 7월 26일 처형됐다. 그의 사면을 거부한 급진파의 수장 로베스피에르는 불과 이를 뒤 체포돼 처형됐다. 1977년 발견된 태양계의 소행성 12701호에는 ‘앙드레 세니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는 1896년 3월 28일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에서 초연됐다. 2월 1일 토리노의 레조 극장에서 초연된 푸치니의 <라 보엠>이 초반의 모호한 평판을

닫고 전 세계로 뿔어나가기 직전이었다. 첫날 막이 내려가자 손초노 출판사는 대본작가 일리카에게 전보를 보냈다. “3막과 4막은 완전한 승리다. 2막도 좋게 받아들여졌다. 청중들은 가수들과 지휘자에게 20번이 넘는 커튼콜을 보냈다.” 타이틀 롤을 맡은 테너 주세페 보르가티는 1막 아리아 ‘어느날 푸른 창공을’부터 앙코르를 받아 다시 불렀다. 처음 이 작품에 ‘공연 불가’ 판정을 내렸던 평론가 같로도 찬사의 글을 썼다. 라이벌인 리코르디 진영의 음악지까지 공연의 성공을 축하했다. 열한 차례의 공연은 만석이었고 다음 시즌에도 열한 차례의 공연이 라 스칼라에서 열렸다. 조르다노는 재능이 미심쩍은 음악가에서 푸치니나 마스카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작곡가로 이름이 오르내리게 됐다.

신에 오페라 작곡가 조르다노에게 쏟아진 이탈리아 문화계의 기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르디 이후’를 노린 당시 새로운 세대 작곡가들의 경쟁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기둥이었던 주세페 베르디는 1871년 <아이다>를 발표한 뒤 1887년 <오텔로>를 내놓을 때까지 16년 동안 신작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는 이탈리아 오페라의 쇠퇴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페라 청중 감소라는 위기를 불러왔다. 베르디의 소속사인 리코르디는 1884년 첫 오페라 <빌리>를 발표한 26세의 자코모 푸치니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를 영입하며 ‘베르디의 후계자’로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그가 1896년 <라 보엠>, 1900년 <토스카>, 1904년 <나비부인>의 연속 히트로 오페라의 새 왕좌를 굳건히 하기 전 이탈리아 오페라의 새 총아가 누가 될지는 불분명한 상태였다. 리코르디의 숙적인 손초노가 1883년부터 신에 작곡가를 대상으로 한 단막 오페라 콩쿠르를 개최한 것도 ‘베르디의 후계자’를 먼저 찾아내 선점하려는 목적이었다.

1888년 두 번째 콩쿠르에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우승작이 된 것은 이 시기 오페라의 ‘베리즈모’ 움직임에 명확한 신호가 되었다. 베리즈모(Verismo)는 ‘사실주의’로 번역할 수 있지만 그 실체는 문학에 있어서의 사실주의보다는 프랑스의 에밀 졸라로 대표되는 ‘자연주의’에 가까웠다. 자연주의 문학은 주로 기층민중의 비참한 생활과 원초적 욕망을 다뤘다. 가진 것 없는 기층민중이 주인공이 되어 치정살인극을 벌이는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나 <팔리아치>는 이런 움직임을 대변했다. 조르다노의 두 번째 오페라인 <몹쓸 인생>도 이런 베리즈모의 직접 연장선상에 있었다.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는 베리즈모 오페라일까? 이는 베리즈모의 개념을 좁게 또는 넓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안드레아 세니에>의 등장인물들은, 하인 출신인 제라르조차 평범한 기층민중이 아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연이어 분출한 이탈리아 새 시대 젊은 작곡가들 즉 푸치니, 조르다노, 마스카니, 레온카발로, 칠레아, 카탈라니, 프랑케티 등의 진보적인 관현악법과 야심적이고 적나라한 감정표현은 베르디 세대의 전통적 오페라에서 자신들을 단절시켰고 그들은 넓은 의미의 ‘베리즈모 작곡가’로 불렸다. 특히 <안드레아 세니에>가 나타내는 격정적인 감정표현과 이에 수반하는 효과적인 관현악법은 이 작품을 (계급적 관점과는 무관하게) 베리즈모 오페라 또는 베리즈모 시대 오페라의 대표작 중 하나로 받아들이기에 손색없게 만든다.

이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음악팬들이 놀라는 점은 그 꾸준하고 집요한 뜨거움, ‘열렬함’이다. 이는 치밀하고 효과적인 관현악법 및 개성적인 주요 아리아들의 패턴에 힘입은 바 크다.

1막 세니에의 ‘어느 날 푸른 하늘을’과 3막 제라르의 ‘조국의 적’, 만달레나의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4막 세니에의 ‘오월의 아름다운 날처럼’은 구조상의 뚜렷한 공통점을 지닌다. 이 아리아들은 가사의 극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선언적인 스타일로 시작된다. 현의 가벼운 화음이나 트레몰로가 동반된다.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지고 투과력이 강한 선율이 강렬한 관현악과 함께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극적인 클라이맥스에 솟아오르는 현과 때에 따라 빛살과 같이 터뜨리는 금관이 동반된다.

조르다노는 푸치니와 또 다른 의미에서 오케스트레이션의 대가였고, 이는 격동적인 장면에서 특히 강화됐다. 이 시대에 대중들은 ‘베리즈모’같은 관념적 표현보다는 ‘격정파’, ‘서정파’와 같은 분류를 선호했는데, 조르다노나 마스카니, 레온카발로는 ‘격정파’, 푸치니와 칠레아는 흔히 ‘서정파’로 불렸다.

이 오페라에서 들리는 실제 프랑스의 혁명가들도 흥미롭다. 프랑스 국가가 된 ‘라 마르세이예즈’ 외에 싸이라(잘 될 것이다), ‘카르마놀’ 같은 유명한 혁명기의 노래들이 당대의 분위기를 재현한다.

푸치니와 달리 출세작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가 각각 자신의 대표작이 된 마스카니나 레온카발로처럼 조르다노의 성공도 지속되지는 않았다.

<안드레아 세니에> 이후 그가 완성한 오페라 아홉 작품 중 2년 뒤의 <페도라> 만이 이후 오페라 극장의 표준 레퍼토리에 진입했다.

<안드레아 세니에>는 그에게 색다른 개인적인 기쁨도 가져다 주었다. 조르다노는 이 오페라를 작곡하던 중 밀라노 그랜드 호텔 소유주의 딸이었던 율가 슈파츠빌림스와 사랑에 빠졌다. 율가의 아버지는 딸을 가난한 음악가에게 보내는 것을 주저하며 조언을 듣기 위해 이 작품의 악보를 베르디에게 보냈다. 악보를 연주해 본 베르디는 바로 “결혼을 허락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두 남녀는 결혼에 성공했다.



Director's Note

연출노트



연출 김지영
Director Kim Jiyoung

베리즈모(Verismo, 사실주의) 오페라는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운동에서 시작되어 현실적인 소재뿐만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격정적인 선율과 표현력이 중시되는 작품이다. 움베르토 조르다노(Umberto Giordano, 1867-1948)의 <안드레아 세니에(Andrea Chénier)>가 그 중 하나이다. 1789년~1799년, 약 10년 간의 프랑스 대혁명의 시대적배경을 둔 이 작품은 프랑스 시인 안드레아 세니에의 삶의 한편이다.

이번 무대에서 연출적인 포인트는 각도이다.

프랑스 혁명가들이 외치는 자유, 평등, 박애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부 원형세트는 내용에 따라 장면마다 다양한 각도변화를 통해 혁명가들의 의지를 나타낼 것이다. 또한 혁명가들에 대한 분노를 담아 귀족사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심을 잡고있는 얼굴형상은 자코뱅파의 지도자로 공포정치를 추진하였던 장 폴 마라(Jean-Paul Marat)의 형상을 상징한 것이다. 관객쪽으로 향하는 얼굴 각도는 강한 혁명의 의지 또는 분노, 폭발과 같은 감정을 대변하기도하고 옆모습으로 회전시켜 프랑스 정세 불안에 혁명운동을 회피하려는 군중들의 심리를 나타내기도 한다. 얼굴형상 세트가 180도 회전되면서 전개되는 혁명재판소는 프랑스 혁명의 본질과 자코뱅파의 독재정치를 통해 공포정치가 나타난 이중성을 보여준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회전무대를 이용하여 계단과 단두대의 만남을 보여준다. 이는 말달레나와 세니에의 죽음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며 두 개가 완벽히 결합되면 드디어 사랑이 승리한 죽음을 맞이 하게 된다.

수애(壽愛) 그리고 삼각관계, 우정 등의 관계 속에서 베리즈모 오페라인 만큼 음악과 함께 오페라 가수들의 내면의 감정을 현실감있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극 중 말달레나와의 사랑이 프랑스혁명에 가려지지 않도록 고심하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 의상 또한 시대를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길이감을 주어 작품의 무게감과 강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프랑스 대혁명은 인류의 삶을 가장 크게 바꿔놓은 사건이다. 물론 어떤 각도에서 보면 공포정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두대 처형을 당했지만 다른 각도에서보면 신분제도를 무너뜨리고 평등사회, 민주주의화를 실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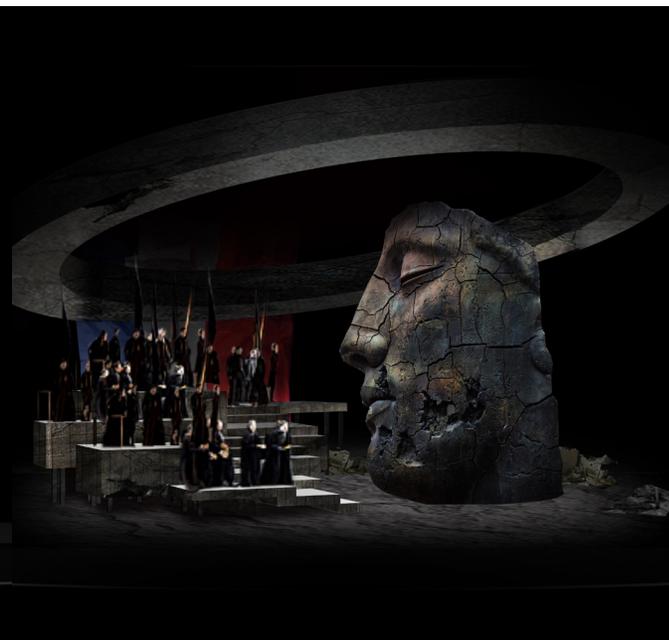
시시때때로 변하는 사회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세니에와 말달레나가 보여준 사랑의 깊이를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대구 관객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갑균 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각 분야의 스태프분들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

Scenic Design

무대디자인



1 막 / Act 1



3 막 / Act 3



2 막 / Act 2



4 막 / Act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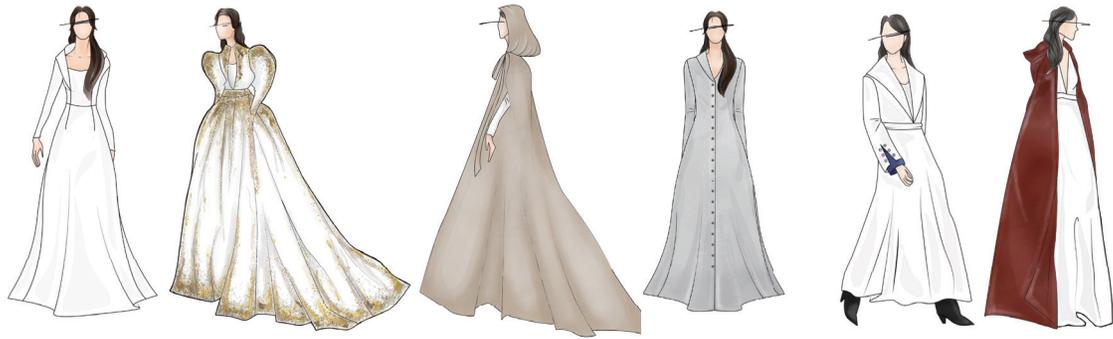
Costume Design

의상디자인



안드레아 세니에

카를로 제라르



만달레나

베르시



마데롱

쿠와니 백작부인

루웨

푸키에

뒤마



마튀에

밀정

플레빌

수도원장

집사

간수



귀족 남녀

시민(남)

시민(여)

하층민



댄서(남)

댄서(여)

여자 매춘부

제라드 아버지

하인

로베스피에르/호위병



마데롱 손자

피오리넬리

궁전재무관

레그레이 부인

수녀



예술감독 정갑균

Artistic Director Chung Kabgun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이탈리아 로마 연극학교 연출과 졸업,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에서 연출 수업
- 최초 국악오페라 <직지>, 독일 칼스루에극장 <나비부인> 연출 및 터키 아스펜도스 오페라&발레페스티벌 <라 트라비아타>, 이탈리아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에서 동양인 연출가 최초로 2년 연속 오페라 <나비부인> 연출
- 오페라 <라 보엠>, <오텔로>, <운명의 힘>,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 <마탄의 사수>, <투란도트>, <나비부인>,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리골레토>, 윤이상 <심청> 등 150여 편 연출
- 국립창극단 상임연출가, 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역임
- 현) 대구오페라하우스 관장



연출 김지영

Director Kim Jiyoung

-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과 오페라연출 전문사 졸업,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아 디플로마 이수
- 이탈리아 오디오리움 디 체루노스코 솔 나빌리오에서 <라 보엠>, 밀라노(마사테) 안피극장에서 <나비부인>, 광주시립오페라단 콘체르탄테 <토스카> 예술감독 및 연출
- 창작오페라 <아리 아리랑>, <달하 비취시오라>, <뱀이 심장을 먹었어> 초연 연출
- 오페라 <비밀결혼>,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예브게니 오네긴> 등 다수 연출
- 뮤지컬 <시스템엑트>, <한양에서 왔소이다>, <피노키오>, <라이트형제> 연출
- 전) 국립오페라단 아카데미, 한국예술종합학교, 서경대학교, 경민대학교 뮤지컬과, 상명대학교 출강
- 현) (재)남동문화재단 이사, 인천아르떼 대표,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인천예고 출강



지휘 마르첼로 모타델리

Conductor Marcello Mottadelli

-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 졸업
- 이탈리아 파르마 토스카니니 재단에서 로마노 간돌피의 부지휘자로 활동
- 스위스 베른극장, 독일 칼스루에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미국 콜라라도 오페라, 러시아 볼쇼이극장, 체코, 덴마크 국립오페라극장 등에서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박쥐>, <일 트로바토레>, <마술피리>, <마르타>, <리골레토>,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나비부인>, <라 보엠> 등 지휘
- 2008-2011 카이로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역임, 2016-2017 부쿠레슈티 국립오페라극장 예술감독 역임, 2018-2021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국립극장 감독 역임
- 현) 사아레마 오페라 페스티벌 조정위원



안무 김영남

Choreographer Kim Youngnam

- 대구시립무용단원 역임
- 제25회 대구무용제 대상, 안무상 수상, 제17회 뉴댄스페스티벌 올해의 안무상 수상, 제30회 대구무용제 최우수상 수상, 2019 대구예술상 무용부분 수상, 2021 대구광역시 표창, 제35회 자랑스런 구민상(대구광역시 달서구) 수상
- 오페라 <카르멘>,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오텔로>, <춘향> 등 다수 안무
- 현) 대구광역시 전문예술단체 카이로스 대표, 문화공간 카이로스 대표



안드레아 세니에 Ten. 윤병길

Andrea Chénier Ten. Yoon Byungkil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비보 발렌티아 국립음악원 디플롬, 시에나 언어대학교 및 솔모나시 시립 아카데미 마스터클래스 수료, 비시 다르테 국제콩쿠르 1위, 엔키로 카루소 국제콩쿠르 2위 및 푸치니 특별상, 프랑코 코렐리협회 올해의 테너상 수상 및 다수 콩쿠르 우승
- 코리아심포니,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프라임필하모닉, 광주시향 등 다수 오케스트라와 협연, 베르디 '레퀴엠',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 브루크너 '테 데움' 등 다수 미사곡 독창자
- 대구오페라하우스, 예술의전당 <투란도트>, 서울시오페라단 <아이다>, <마탄의 사수>, 국립오페라단 <안드레아 세니에> 등 20여 편 오페라 주역 출연
- 현) 전남대학교 교수



말달레나 Sop. 임세경

Maddalena Sop. Rim Saekyung

- 한양대학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 솔리스트 연주자 과정 수학
- 잔바티스트 비오티 콩쿠르, 영국 BBC 콩쿠르 한국 대표 외 다수 국제콩쿠르 입상
- 2004년 리카르도 무티 지휘의 오페라 <카르멜회 수녀들의 대화>로 데뷔, 2006, 2007년 스칼라 시즌 오프닝 오페라 <아이다>, <일 트리티코> 외 볼자노, 루카, 노바라 극장에서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나비부인> 공연
- 빈 국립극장 오페라 <나비부인>, 아레나 디 베로나 오페라 <아이다>, <나비부인>, 일본 동경 오페라하우스 <아이다>,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나비부인> 주역 출연, 이집트 룩소르 야외극장, 독일 뮌헨극장,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 이탈리아 베로나 야외극장 등 <아이다>, 미국 워싱턴 극장, 홍콩 국립극장, 폴란드 국립극장, 스페인 브레겐즈, 사본린나, 카날리스, 노르웨이 트론하임 베르겐 등 오페라 페스티벌 참여
- 제11회 대한민국오페라대상 여자주역상 수상, 2023 대구오페라하우스 사야오페라어워즈 여자주역상 수상
- 현) 중앙대학교 성악과 교수



안드레아 세니에 Ten. 박성규

Andrea Chénier Ten. Park Seonggyu

- 삼육대학교 음악교육과 졸업(사사 류재광),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졸업
- 레온카발로 국제콩쿠르 1위, 비오티 국제콩쿠르 3위, 잔도나이 국제콩쿠르 1위, 마르세유 오페라 국제콩쿠르 1위와 관객상 수상
- 해외 유수의 극장에서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나폴리 산카를로 오페라극장), 바리톤 레나토 부르손과 <리골레토>, <베르테르>, <라조콘다> (로마 오페라극장), <투란도트> (런던 로열오페라코벤트가든, 코펜하겐 로열오페라, 프라하 국립극장) <토스카>, <노르마>, <아이다>, <나비부인> (트리에스테 베르디 오페라극장), <가면무도회>, <일 트로바토레> (프랑스 릴 국립 오페라극장), <메데아 이두에 포스카리>(팔레르모 오페라극장), <루살카>, <에스클라르몽드>, <방향하는 네덜란드인>, <로엔그린> (독일 쾰른 오페라극장) 등 다양한 작품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
- 국내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안드레아 세니에>, <메피스토펠레>, 마에스트로 정명훈 지휘로 <시몬 보카네그라>, 서울시향 신년음악회에 출연
- 현)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전 세계 30여 주요 오페라극장에서 주역으로 활동 중



말달레나 Sop. 릴라 리

Maddalena Sop. Lilla Lee

- 연세대학교 재학 중 도이,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성악과 졸업, 재학 중 장학금 콩쿠르 우승, 파르마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파운데이션 주최 오페라 과정 졸업, 모데나 오라치오 베키 토넬리 음악원 성악과 전문가 과정 졸업
- 베로나 극장 투란도트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파도바 베르디 극장 아리스 아다미 코라데티 국제성악콩쿠르 1위, 마르티넬리 페르틸레 국제성악콩쿠르 1위 및 청중상, 사르자나 오페라, 스피로스 아르지리스 국제성악콩쿠르 2위 등 다수 수상
- 라 페니체 극장, 베로나 필하모닉 극장, 프라하 국립극장, 소피아 국립극장, 바르샤바 국립극장, 부카레스트 국립극장, 두바이 오페라하우스,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 예술의전당, 세종문화회관 등 <투란도트>, <토스카>, <마농레스코>, <나비부인> 등 다수 작품 주역 출연
-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에서 <라 보엠> 미미 역으로 연주는 전세계 40개국에서 영화로 실황상연(런던 코벤트가든 포함)
- 현)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



카를로 제라르 Bar. 최진학

Carlo Gérard Bar. Choi Jinhak

- 추계예술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A.I.D.M 아카데미 졸업
- 움베르토 조르다노 국제성악콩쿠르 1위 및 특별상, 치타디 테르니 국제 성악콩쿠르 1위, 비시 다르테 국제성악콩쿠르 베르디 특별상
- 대구오페라하우스 <아이다>, <피가로의 결혼>, 서울시오페라단 <안드레아 세니에>,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운명의 힘>, <토스카>, 베세토 오페라단 <아이다>, 노블아트오페라단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홍정희오페라단 <라 보엠>, 대구유네스코 음악제 등 다수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베르시 M.Sop. 김선정

Bersi M.Sop. Kim Seonjeong

-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오페라과 졸업
- 독일 브레멘, 카셀극장 등 유럽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
- 함부르크, 뤼벡, 브레멘, 플렌스부르크 등에서 콘서트와 오라토리오 공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및 여러 오페라작품에서 주역 출연
-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BS방송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닉 등 다수의 교향악단 협연
-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수원시립합창단 등과 오라토리오 공연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



카를로 제라르 Bar. 오승용

Carlo Gérard Bar. Oh Seungyong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과 졸업,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유학, 브레샤 국립음악원 디플롬, 국립오페라단 상임단원 역임
- 비오티 발세지아 콩쿠르, 주세페 디 스테파노 콩쿠르 등 세계 10여개 국제콩쿠르에서 우승
- 울산시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 수원시향, 충남도향, 경북도향, 통영국제음악제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영 프라하 음악 페스티벌 참가
- 오페라 <안드레아 세니에>, <심청>, <피가로의 결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텔로>, <아이다>, <리골레토>, <나비부인>, <토스카>,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팔리아치>, <보체크>, <살로메>, <마농 레스코> 등에서 주역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베르시 M.Sop. 손정아

Bersi M.Sop. Son Junga

-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및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이탈리아 살레르노 베르디 극장, 독일 칼스루에 국립극장, 헝가리 부다페스트 에르켈 극장, 독일 콘스탄츠 썸머페스티벌, 싱가포르 뉴오페라싱가포르단, 빅토리아 극장 재개관 기획 등 해외 극장 초청 오페라 출연
- 국립오페라단, 대구국제오페라축제,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대구시립오페라단, 대구오페라하우스, 경북오페라단, 호남오페라단 주최 등 수십편 오페라 주·조역 출연
- 대구시립교향악단, 경북도립교향악단, 전주시립교향악단, 대구시립합창단, 창원시립합창단, 구미시립합창단, 김천시립합창단, 경주시립합창단, 포항시립합창단 등과 협연
-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외래교수 및 김천예고, 경북예고 강사 역임
- 현) 칸 엔터테인먼트 소속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마데롱 M.Sop. 손진희

Madelon M.Sop. Son Jinhee

- 한양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도니제티 아카데미아 및 로마 아카데미아 디플롬
-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 1위, 대구성악콩쿠르 대상
- 과천시립교향악단, 국립심포니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연천 DMZ 국제음악제, 일본 삿포로 아사히야마 페스티벌 등 유수의 콘서트 출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피가로의 결혼>, 국립오페라단 <신데렐라>, <마술피리>, <카르멘>, <아드리아나 르쿠브리크>,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라 트라비아타>, <투란도트>, <리골레토>, <오텔로>, 창작오페라 <봄봄>, <김부장의 죽음>, <미호면> 등 다수 출연
- 백석대학교 외래교수, 추계예술대학교 콘서바토리 겸임교수 역임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루췬 Bass 이재훈

Roucher Bass Lee Jaehoon

- 영남대학교 성악과, 백석대학교 대학원 성악과 졸업, 밀라노 시립음악원, 로마 AIDM, 로마 아레나 아카데미 졸업
- 이탈리아 만토바 콩쿠르, 레나타 테발디 콩쿠르, 레온 카발로 콩쿠르, 라 스페치아 콩쿠르, 잔도나이 콩쿠르, 조반니 마르티넬리-아우렐리아노 페르틸레 콩쿠르, 알레산드리아 콩쿠르, 스페인 빌바오 콩쿠르 등 수상 및 수상
- 피렌체 극장에서 바리톤 레오누치와 데뷔 후 이탈리아 전역과 스페인 빌바오 극장, 터키 아스펜도스 극장, 독일 칼스루에 극장, 싱가포르 극장, 일본 히로시마 극장과 국내 대구오페라하우스, 서울 예술의전당, 인천오페라단, 경남오페라단, 대구시립오페라단에서 <리골레토>, <아이다>, <돈 조반니>, <맥베스>, <라 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마술피리>, <라 트라비아타>, <나비부인>, <투란도트>, <어린왕자> 등 다수 오페라 주역 출연
- 2008년 밀라노 조르날레에 주목할 성악가로 선정
- 현) 주식회사 스칼라 예술단 음악감독, 영남대학교 성악과 객원교수



마데롱 M.Sop. 김향은

Madelon M.Sop. Kim Hyangeun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졸업,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학(UdK)오페라과 석사 졸업
- 오라토리오 바흐 'B단조 미사', 헨델 '메시아', 멘델스존 '엘리아', 드보르작 '스타바트 마테르', 베토벤 '9번 교향곡', 말러 '부활' 등 독창자
- 오페라 <마술피리>,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한국 창작오페라 <김부장의 죽음>, <뒤틀발킬러>, <박하사랑>, <봄봄>, <동승>, <1945>, <선비> 등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출강 역임
- 현) 세종대학교 성악과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출강



루췬 Bass 문석훈

Roucher Bass Moon Seokhoon

- 충남예고, 경희대학교 졸업, 독일 슈트트가르트 오페라과 석사 졸업
- 이탈리아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 콩쿠르 3위, 사르자나 국제콩쿠르, 플라비아노 라보 국제콩쿠르, 독일 굿 임링 국제콩쿠르 2위 및 청중상, 뮌헨 보칼 게니알 국제콩쿠르 등 다수 국제 콩쿠르 입상
- 베토벤 '9번 교향곡', 베르디 '레퀴엠', 모차르트 '레퀴엠', 헨델 '메시아', 하이든 '넬슨 미사' 독창자
- 독일 프랑크푸르트 알테오퍼, 본 극장, 만하임 국립극장, 뤼벡 시립극장, 오스트리아 테아터 안 데어 빈 극장, 이탈리아 페라라 시립극장 등 유럽 다수 극장에서 활동
-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사랑의 묘약>, <루살카>, <오를란도>,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호프만의 이야기>, <라 보엠>, <투란도트>, <토스카>, <에브게니 오네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 <로엔그린>, <감람산의 그리스도>, <돈키호테> 등 다수 오페라 베이스 주역 출연
- 2022년 대구오페라하우스 <투란도트> 티무르 역으로 한국 오페라 데뷔
- 현) 독일 다름슈타트 국립극장 솔리스트로 유럽을 주무대로 활발히 활동 중



마티에 Bar. 서정혁

Mathieu Bar. Seo Jeonghuyeok

- 영남대학교 성악과 졸업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수석 입학 및 실기 수석 졸업, 소프라노 라이나 카바이반스카 아카데미 전액 장학생,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 베르첼리 시립 아카데미, 마리아노 코멘세 아카데미 성악 및 합창지휘 졸업
- ‘객석’ 선정 한국을 빛낸 오페라 가수 75인 선정
- 이탈리아 비테르보, 몬테코사로, 베르가모, 만토바, 로디 국제콩쿠르 입상
- 이탈리아 피아첸차, 모데나, 베로나 피아르모니코, 코모, 베르첼리, 산레모, 산조르조, 바레제, 브레사노네, 불가리아 소피아, 부르가스, 독일 칼스루에, 서울 국립극장, 예술의전당, 대구오페라하우스 등 유럽과 한국 유수의 극장에서 활동
- 오페라 <라 보엠>, <사랑의 묘약>, <일 트로바토레>, <돈 파스칼레>, <팔리아치>, <헨젤과 그레텔>, <토스카>, <라 트라비아타>, <박쥐>, <박하사탕>, <비밀결혼>, <운명의 힘>, <카르멘>, <나비부인>, <로미오와 줄리엣>, <원저의 명량한 아낙네들> 등 다수 작품 출연
- 현)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객원교수, 경북예고 출강



밀정 Ten. 오영민

Incredible Ten. Oh Youngmin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성악전공 졸업,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리치니오 레피체 디 프로시노네 국립음대 수석입학 및 졸업
- 엄정행 콩쿠르, 부일 콩쿠르, 대구성악콩쿠르, 개천예술제, 청도 연지 가곡 콩쿠르, A.I.D.M 국제 콩쿠르,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콩쿠르, 트로페오 라 페니체 국제콩쿠르, 마리아 카닐리아 국제콩쿠르, 프란세스코 칠레아 국제콩쿠르, 오타비오 지노 국제콩쿠르, 라우리볼피 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콩쿠르 20여 개 우승 및 입상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박쥐>, <돈 조반니>, <라 보엠>, <메리위도우>, <잔니 스키키>, <능소화 하늘꽃>, <박희광>, <심청>, 창작뮤지컬 <시인에게>, 합창극 <임진년 행주나루의 하얀함성> 등 주역 출연
- 현) 공연예술창작소 <The 공감> 대표, KBS FM <아름다운 오후, 네시입니다-아름다운 목소리 벨라보체> 진행자



마티에 Bar. 전종욱

Mathieu Bar. Jeon Jongwook

-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러시아 UFA대학 마스터클래스 및 독일 바그너 장학재단 초청 연주
- 대구오페라하우스, 광주시립오페라단, 독일 하일브른, 바덴바덴, 브레머하펜 등 다수 극장에서 활동
- 모차르트 대관식미사, 포레 레퀴엠, 로시니 작은장엄미사, 바흐 요한수난곡 솔로 출연
- 오페라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코지 판 투테>, <돈 조반니>, <카르멘>, <나비부인>, <박쥐>, <텔레폰>, <팔스타프>, <가면무도회>, <리골레토>, <팔리아치>, <오늘도 새로운 소식> 등 다수 오페라 출연
- 현)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출강



밀정 Ten. 이충만

Incredible Ten. Lee Chungman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수석 졸업, 이탈리아 파르마 왕립극장 아카데미아 베르디안네 졸업
- 국내·외 동아, 국립오페라단, 라벨라오페라단, 이탈리아 국제콩쿠르 ‘루이지 차누콜리’, ‘아드리아나 말리폰테’, ‘보치 인칸토’, ‘갈리아노 마지니’ 우승 및 부세토 베르디 콩쿠르, 잔도나이, 클레토 톰바, 마리아 카닐리아 외 수십회 입상
- 이탈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헝가리, 독일 등에서 오페라 <라 보엠>,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토스카>, <가면무도회> 등 다수 출연
- 현) 전문 연주자로 활동 중



쿠와니 백작부인 M.Sop. 김하늘

La Contéssa di Coigny M.Sop. Kim Haneul

-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석 입학 및 졸업, 독일 뉘른베르크 국립음대 디플롬 최고학점 졸업
- 독일 뉘른베르크 심포니 <말러>, 청주시향, 광주시향 등 협연
- 나인 심포니, 모차르트 레퀴엠, 미사, 부에노스 아이레스 미사탱고 협연, 독일 언론에서 아름답고 부드러운 메조 소프라노로 호평을 받으며 아우스부르크, 뤼르트, 노이마르크, 에어랑엔 등 다수 초청 공연
- 대구오페라하우스 <리골레토>, <피가로의 결혼>, 국립오페라단 '오페라 하이라이트', <마술피리>, 대전오페라하우스 <코지 판 투테>, 광주시립오페라단 <카르멘>, <헨젤과 그레텔>, 창작오페라 <망부운> 등 다수 오페라단에서 주·조연 연주
- 한국예술종합학교, 충북예고 강사 역임
- 현) 전남대학교 출강



푸키에 Bar. 정제학

Fouquier Bar. Jung Jehak

-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실기우수 졸업, 독일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석사과정 최고점 졸업
- 이탈리아 가곡 콩쿠르 1위, 세일한국가곡콩쿠르, 광주성악콩쿠르 입상
- 세일아트홀 라이징 스타 독창회 및 한국 바그너협회 장학생
- 대구오페라하우스 <살로메>, <나비부인> 예술의 전당 <리골레토>, 서울시오페라단 <투란도트>, 성남아트홀 <피가로의 결혼>, <사랑의 묘약>, <세비야의 이발사>, <팔리아치>, <피노키오> 등 주·조역 출연
- 독일 뒤셀도르프 톤할레극장 콰이어 솔리스트
- 현)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 한양대학교 실기강사 출강 및 칸 엔터테인먼트 소속 성악가



플레빌/재판관 Bass 이기현

Fléville/Dumas Bass Lee Kihyun

- 계명대학교 성악과 졸업, 런던왕립음악대학 석사(PGCert) 수료
- JTBC 팬텀싱어4 출연
- 제 7회 파파로티 전국 성악콩쿠르 1위, 제 26회 성정음악콩쿠르 성악부문 금상, 제 35회 대구성악콩쿠르 장려상, 제 10회 마그다 올리베로 국제성악콩쿠르 특별상, 2015년 진주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성악부문 최우수상, Opera Awards Foundation, Josephine Baker Trust, 성정&황진 장학생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살로메>, <라 보엠>, <잔니스키키>, <심청>, <달 빛>, <안드레아 세니에> 등 주·조역 출연
- 2019 영국 옥스포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토벤 9번 교향곡 베이스 솔리스트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픈스튜디오 수료, 비원뮤직홀 입주 음악가
- 현) 비원뮤직홀 입주 음악가



수도원장 Ten. 이동규

L'abate Ten. Lee Donggyu

- 영남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이탈리아 아리고 보이토 국립음악원 비엔노 과정 졸업
- 2018, 2019년 베르디 페스티벌 솔리스트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토스카>, 창작 오페라 <흙> 등 주·조역 출연
- 현)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집사/간수 Bass 전재민

Il Maestro di Casa/Schmidt Bass Jeon Jaemin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성악과 학사 졸업, 독일 IAFM-Köln 석사 졸업
- C. Bechstein Centrum Köln 초청 연주, 개인연주
-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아이다>, <라 보엠>, <라 트라비아타>, <심청> 등 다수 주·조역 출연
- 현) 대구오페라콰이어 트레이너, Ensemble MSG 단원,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

카이로스 댄스컴퍼니

Kairos Dance Company



안무 김영남



박예진



김채린



성시준



류정인



김나영



최서아



전소영



김범수

극단 늘해랑

Theater Company Neulhaerang



대표/총감독 김예진



부대표 박미화



고봉조



석은석



박중홍



박준우



정찬업



고예람

디오오케스트라

Daegu International Opera Orchestra

음악감독 박은지 기획실장 이은배 악보담당 이상원 공연담당 정은영 홍보담당 황재웅
Violin 1 박은지 장지은 장혜지 양수빈 김재은 손효진 장혜진 박민서 홍재완 노선균
Violin 2 이은영 장유진 류가현 이지혜 정수현 이지윤 김예성 이지애
Viola 배은진 김효원 박선영 김예송 조재형 조민지
Cello 강윤선 설예은 박소현 박소희 최재영 김형기 **C.Bass** 김석민 김지정 서한나
Flute 이한나 김민주 **Picc** 류정희 **Oboe** 배민주 최규연 **E.Hn** 강지수
Cla. 김민수 전다양 **Bn.** 조혜연 조운주 **Hn.** 양삼영 김태우 송상호 김태수
Tpt. 이해연 전성화 곽은교 **Tbn.** 김진욱 이민정 이상빈 **Tuba** 김민재
Timp. 권혜진 **Perc.** 이희정 허동훈 김소진 **Harp** 이은하



대구오페라콰이어

Daegu Opera Choir

대표 김지영 음악감독 김성환 단무장 배은경 사무 김애지
 반주 류지원 임윤지 트레이너 조소희 전재민
Sop. 강송지 안유진 신유경 박주은 박예람 서아영 이다영 이신유 이주는 정경진 조소희 김미성
Alto 김서현 박지원 박수정 권찬미 권민선 문은초 서지원 이진아 정주현 한혜원 김다빈 이윤화
Ten. 권익현 박재민 서영덕 손병환 이후영 임진성 지현태 윤덕환 정도영
Bass 김대인 김준년 문형우 박종섭 전이현 정민수 박종민 김동현 이승훈





무대디자인 김현정

Scenic Design Kim Hyunjung

- 부산대학교 미술학과(가구디자인) 졸업, 이탈리아 브레라국립미술원 졸업
- 국립오페라단 미술감독 역임, 서경대학교 공연예술학부 전임대우 교수 역임
- 오페라 <아랑>, <지귀>, <사랑의 묘약>, <피가로의 결혼>, 송년 오페라 갈라 <지크프리트의 검>, <세비야의 이발사>, <투란도트>, <마술피리>, <아이다>, <오텔로>, <토스카>,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창작오페라 <박쥐>, <허왕후>, <양철지붕>, 연극 '오리사냥', '연애희곡', '콜렉션', '십이야', '아일랜드', '화금석', 국립창극단 '적벽' 등 무대디자인 및 신년음악회, 터키만찬 전시회 등 참여



분장디자인 임유경

Make-up Design Yim Yookyung

- 이탈리아 밀라노, 이탈리아 코모 오페라 페스티벌, 이탈리아 몬차, 오스트리아 빈, 체코 프라하, 일본 도쿄, 나고야, 중국 북경, 상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탐 등 해외공연 수십 회 참여
- <아이다>, <투란도트>, <가면무도회>, <나비부인>, <토스카>, <라 보엠>, <리골레토>, <춘향전>, <심청전>, <캣츠>, <오페라의 유령>, <그리스>, <레 미제라블>, <맘마미아>, <토지> 등 국내 공연 1,000여 작품 분장디자인
- 전) 정화예술대학교 겸임교수, 추계예술대학교 강사
- 현) 전문분장팀 Face off 대표, 서경대학교, 인천대학교 강사



의상디자인 김건이

Costume Design Kim Kune

-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석사
- 대구오페라하우스 오페라 <라 롬디네>,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헨젤과 그레텔>, <살로메>, <돈 조반니> 의상디자인 및 의상감독
- Premiere class 참가 (Paris, France)
Vendome Luxury 전시회 참가 (Paris, France)
Pure London 참가 (London, U.K.)
Coterie Trade Show 참가 (New York, U.S.A.)
Who's Next 참가 (Paris, France)
대련패션위크 초청 컬렉션 참가 (Dailen, China)
상해컬렉션 참가(Shanghai, China)
서울컬렉션 참가 (Seoul, Korea)
- 현) 앙디울트랜드 대표/패션디자이너,
세계패션그룹 (FGI) 한국지부 회원, 한국디자이너 연합회 회원,
영남이공대학교 패션디자인&마케팅과 겸임교수



오페라코치 은빛나

Opera Coach Eun Bitna

- 계명대학교 음악공연예술대학 피아노과 및 동대학원 졸업,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아 및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오페라코치과 졸업
- 오토리노 레스피기 국제반주콩쿠르 1위
- 오페라 <아이다>, <나부코>, <토스카>, <라 보엠>, <마술피리>, <세비야의 이발사>, <심청> 등 다수 작품 오페라 코치
- 세계적인 지휘자 리처드 보닝, 파비오 루이지, 크리스토프 에센바흐 등과 함께 부세토, 카몰리 등지에서 다수의 콘서트 및 수신회 독창회 반주
- 현) 계명대학교 예술대학원 반주과 출강,
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반주 강사

프로덕션 스태프

Production Staff

예술감독 정갑균

지휘 마르첼로 모타델리 Marcello Mottadelli

연출 김지영

무대디자인 김현정

의상디자인 김건이

조명디자인 문길환

분장디자인 임유경

무대감독 정진섭

무대조감독 소찬호

조명감독 최진영

음향감독 차광석

안무 김영남

오페라코치 은빛나

반주 강경신

조연출 장소희, 손미경

조연출보 이아영

소품수 윤주은

자막오퍼레이터 허성훈

무대크루 원현지 성용훈 이지윤 이경도 전진룡

정종극 김서울 박상민 석다연

조명크루 정유진 금명정 김효진 이수연 김경현

음향크루 윤선영

의상크루 김나영 김진희 김현영 김효진 이예원

분장팀 페이스 오프 실장 임경식, 팀장 이정민,

김미숙 임그린 장사랑 이예진 박혜인 배지혜

김영천 김세희 조시연 김윤지 양에서 노준영

정혜란 한신영 정은서 김도연

촬영팀 나무연술

무대제작소 온스테이지

의상제작소 앙디올

소품제작소 하다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오페라하우스

Daegu Foundation for Cultures & Arts Daegu Opera House

관장 정갑균

공연예술부장 김수정

무대시설부장 주누리

공연기획팀 팀장 정원철 / 김영선 류가영 조하나 정유호

박지윤 한규리 박세별 최보윤

교육사업팀 팀장 김민정 / 박형기 최서운 최수민 박지예 강지운

무대예술팀 팀장 이효섭 / 문길환 차광석 김태학 정진섭 박지울

조원호 김남오 최진영 이남문

시설관리팀 팀장 강영구 / 이철훈 장성훈 김경도 오준호

9기 오페라팬

9th Operafan

권혜미 김수정 김은비 문보미 박수현 박인환 배순욱 백가은

윤희선 이해원 이해인 임수진 장성민 장조휘 정연균 정유경

정은별 정지민 허진희

대구오페라하우스 개관20주년 기념 특별멤버십

20th anniversary of Daegu Opera House
Special Membership

김창윤 김태웅 김태연 김관영 서은자 이상호 백순기 민복기

김성미 이석화 진영민 김지영 남성희 하운수 김용범 박근영

송준기 이춘희 김영길 최영철

대구오페라하우스 멤버십

Daegu Opera House Membership

김아미 유정임 조연옥(베르디 회원)

강철민 박주병 방혜영 성영희 허선 노진우 박재호(푸치니 회원)

대구오페라하우스 <안드레아 세니에> 관람하고
이월드 티켓 할인받자!

[성인기준 요금] 43% 할인 ▶ 27,900원 (동반 1인 까지 / 5.18 ~ 31)
[할인 방법] 이월드 정문 매표소에서 '대구오페라하우스 <안드레아 세니에> 공연티켓' 제시

29

DREAMS COME TRUE

29 YEARS OF DREAM

비비, 포포, 라라가
파티플래너가 되어

이월드의 29번째 기념파티를
개최한다고 해요! 어떤 재미있는
일을 준비했는지 알아가볼까요?

2024.04.13 ~ 05.31

라라의 29th 드림 업!



시간 | 14:00, 17:40
위치 | 편타지광장(매주 주말)

셀러브레이션 포토파티

시간 | 12:00
위치 | 편타지광장(매주 주말)



29주년 기념 비비프렌즈와 함께
신나는 노래와 포토타임을 즐겨봐요!

29th 럭키게스트

매주 주말 오후 3시까지
위치 | 이월드 정문 케이트



주말 고객 대상 이월드 정문 케이트 앞에서는
케이트를 29번째, 29주년 기념 손님에게 주어지는
29주년 특별 한정 선물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꽃으로 물든 이월드!



수국부터 사스타타 데이지, 루피너스, 알칸올 등
다양한 꽃으로 물든 이월드를 만나보세요!

* 자세한 행사 내용은 이월드 인스타그램 @eworld.official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
* 일부 행사는 상황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